

#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순 형(서울대 교수) · 이 옥 경(서울대 강사) · 김 지 현(서울대 박사수료)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이혼가정 아동의 증가와 이들의 적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학교와 또래로 사회적 세계가 확장되고 학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개인적인 변수들과 가정, 학교 등 환경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년, 성별,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학년, 성별, 이혼여부를 통제한 후의 아동의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년, 성별, 이혼여부를 통제한 후 아동의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총 대상 아동은 312명으로, 초등학교 4학년 131명·6학년 181명, 남아 152명·여아 160명, 일반가정 아동 211명·이혼가정 아동 101명이다. 조사는 아동의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후 삼원변량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아동의 우울은 성별과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아일수록 더 우울을 느꼈으며,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아동이 우울을 더 경험하였다. 아동의 또래의사소통은 학년, 성별, 이혼여부의 주효과 및 성별과 이혼여부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6학년 아동일수록, 여아일수록,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아동일수록 또래와 보다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또한 성별과 이혼여부의 상호작용효과에서, 남아의 경우 이혼가정 아동이 또래와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반면 여아는 이혼가정 아동이 덜 개방적인 또래의사소통을 하였다. 부모자녀의사소통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결과만이 도출되어, 6학년 아동이 보다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둘째, 아동의 학년, 성별, 이혼여부를 통제한 후 각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아동의 우울 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아동의 학년과 우울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6학년 아동일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또래의사소통 변인을 투입한 결과, 학년, 성별, 또래의사소통의 변수가 유의하게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즉, 6학년 아동일수록, 남아일수록, 또래와 덜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학교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 변수를 투입한 결과 아동의 학년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6학년 아동일수록, 부모와 덜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학교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의 이혼여부와 관계 없이 아동의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연령, 성별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임을 알려준다.

셋째, 아동의 학년, 성별, 이혼여부를 통제한 후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의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학년,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 변인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변인임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학년이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는 아동의 우울, 부모자녀의사소통, 또래의사소통의 순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즉, 우울한 아동일수록, 부모자녀 간에 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 간에 덜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은 낮았다. 아동의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아동의 연령, 성별, 부모 이혼여부를 모두 고려한 이상의 결과에서도 부모의 이혼여부는 유의한 변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연령, 성별, 이혼여부 및 우울, 또래의사소통, 부모자녀의사소통을 고려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이혼여부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및 또래의사소통 등의 변수의 차이가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이혼가정이라는 것만으로 학교에서의 아동의 부적응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변수들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